

CT
2301
49822140

49822140

KDMT 49822140

284.2
H248C

32

동방교회의 신격화와 칼빈의 성화론 비교연구

지도교수 유 해 무

고려신학대학원

신 학 과

박 영 민

1997학년도

고 신 대 학 교



DM00004253

DM 0000 4253

동방교회의 神格化와
칼빈의 聖化論 비교연구

指導教授 유 해 무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
으로 提出함.

1997年 月

고려신학대학원
신 학 과
박 영 민

박 영 민의 論文을 認准함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19 년 월

감 사

나를 구원해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주신 삼위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말씀의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힘써오신 신대원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칼빈연구와 이에 따른 삼위일체신학을 배울수 있게 하신 유해무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학이 무엇이고 신학하는 자세와 말씀의 사역자가 어떻게 되어야 함을 배울수 있어서 무한 영광이었습니다.

동방교회에 대해 알게 해주시고 교수님께 논문지도를 받게 되었던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미비하고 부족한 본고를 통하여 구원론적 성령론의 시각에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칼빈의 신학에서의 성화는 매우 실질적인 의미가 많이담겨져 있었습니다.

구속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나타내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 절실히 이 시대에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방교회에 좋은 전통을 개혁신학에서 수용할수 있는 가능성도 보았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7년 2월 일
박 영 만 드림

목 차

I. 서 론	1
A. 논문의 의도와 목적	1
B. 연구방법과 범위	2
II. 동방신학에 대한 이해	4
A. 예배로서의 신학	4
정교회 예배의 특징	5
정교회의 성례전	7
B. 만남으로서의 신학	12
III. 동방신학에 있어서의 신격화의 위치	15
A. 신격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	16
B. 동방신학에 있어서의 핵심으로 신격화	18
IV.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에 나타난 성화의 이해	20
A. 하나님 은혜 중심의 성화	21
B. 실천적이고 전투적인 성화	22
V. 칼빈의 성례전에 나타난 신비적 연합(Mystical Union) 이해	23
A. 칼빈의 신비적 연합	23
B. 칼빈의 성례전속의 신비적 연합	24
VI. 성경구절 주석을 통한 칼빈의 신격화 이해와 동방교회 신격화 이해 시편 82:6의 주석	27 28
VII. 결 론	29
참 고 문 헌	32

I. 서론

A. 논문의 의도와 목적

오늘 우리의 세상을 보면 다원화, 다차원된 세상을 직면하고 있다. 기독교 회에도 예외는 아니다. 확실히 기독교회내에서도 많은 교파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교파들이 나온것은 분명히 역사적 사회적 객관적인 원인들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에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함이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라 생각된다. 기독교회도 마찬가지다. 개혁교회는 분명히 서방교회 신학의 전통에 서있다.¹⁾ 1054년에 동서방교회가 펠리오케 논쟁을 절정으로 양분되면서,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독자적으로 신학과 신앙을 발전시켜 나갔다. 독자적인 길을 가면서 유익한 점도 있었지만 약점도 많이 보게 된다. 그러한 약점은 서방신학에서 찾아볼수 있다.

동방신학은 學으로 신학을 시작하지 않는다. 물론 學적인 작품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원초적으로 신학이란 바로 삼위하나님에 대한 예배에서 신학을 시작한다. 동방정교회 신학이란 책의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개신교 신자가 정교회 사제에게 그의 신학적인 신념에 대하여 설명을 해 달라고 하였더니 그 사제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묻기보다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묻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는 이야기이다.²⁾

그러나 서방신학은 다르다. 인간의 이해 설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그분의 뜻이 죄인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저리잡고 있다. 요즘, 이것에 대한 비판은 실랄하다.

이러한 신학에 있어서의 상이한 이해는 역사가 계속되면서 매우 골이 깊어가고 있다. 골이 깊어간다고 하나님의 같은 지체로서 가만히 볼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방,서방이 서로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많은 부분에서 낯설고 이상한 점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인간들의

1. 유해무, 삼위하나님의 사역으로서의 신격화,

(고신대학원, 개혁신학과 교회 7호, 1997), p205

2. 대니얼 B.클린데닌, 동방정교회 신학, (서울, 은성출판사, 주승민옮김, 1997), p8

편견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한다.

삼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장차동일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모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서로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좋은 협력과 상호귀중한 유산들을 서로에게 공급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짧은 생각으로 좀 광대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많은 신학적 주제가 있었지만, 동방교회의 용어인 신격화와 서방교회 특히, 개혁신학에 가장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근간을 이루고 있는 칼빈에게 있어서의 성화를 살펴보고 동,서방을 상호이해의 관점에서 비교하고자 하였다. 물론, 칼빈의 성화도 역시 지금도 많은 학자들에게 의하여 연구되고 해석되고 있지만, 그의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동방신학의 신격화를 비교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B. 연구방법과 범위

본 논문의 전개방식은 I 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의도와 목적을 살피고, II 장에서는 동방신학에 대한 개론을 잠시 언급하고 특히, 예배(성례)중심의 동방신학의 이해가 우리가 앞으로 논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동방신학이해에 있어서 이 부분을 신격화와 연관해서 살필 것이고, 또한 동방신학에 있어서 교제(communion)의 용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삼위하나님과 교제에 관심을 둔 동방신학의 이해역시 신격화의 전반적인 이해에 상당한 역할을 할것으로 판단된다.

III 장 동방신학에 있어서의 신격화의 위치란 장에서는 신격화가 사용된 역사적 용례들을 간략하게 살피고 동방교회가 스승으로 신학적 유산으로 생각하는 고대 교부들의 신격화 이해를 살필 것이다. 또한, III 장의 결론으로 이러한 신격화란 용어가 동방신학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 중심적 내용을 고찰해보고 서방신학의 전통에서 있는 개혁신학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볼것인가 함께 생각해본다.

이러한 생각을 기초로 하여 개혁신학의 원조라고 할수 있고 이전의 신학적 작업을 잘 정리하였고 모범적인 신학서술을 한 칼빈에게 있어서 동방신학과 비슷한 성도의 삶의 체계를 만든 성화론의 이해로 넘어간다. IV 장에서 성화를 살펴보면서 동방교회와 비슷한 점을 음미 할 것이다.

강요3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어떤 결과가 따르는가”란 제목에서 우리는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하나

님의 객관적인 계시가 믿는 성도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3권의 많은 내용중에 칼빈의 성화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의 성화이다. 즉 성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성화임을 정리하고 또한, 이 성화의 공작은 성도의 실천적이고 전투적인 성화임을 보이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동방교회의 신격화의 의미는 역시 칼빈에게 이러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살필 것이다.

V장에서는 칼빈에게 나타난 성례전에 속에 신비적 연합(Mystical Union) 이해가 어떤한가를 본다. 이에 앞서서 신비적 연합이 낳는 의미들을 한편 개론적으로 살필 것이다.

비록 칼빈은 신격화란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신격화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성경적이고 풍성한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동방교회의 신격화와 칼빈이 말하고 있는 성화론에서 구원받은 인간은 동일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으로 부름받고 종말적인 삶의 선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낮고 낮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본 논문을 기록한 동기고 목적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와있는 신격화와 관련된 구절을 주석함으로 칼빈의 성화론의 의미와 신격화의 의미를 풍성히 살려볼까 한다. 이러한 목적은 우리는 그동안 칭의론에 입각한 생각이 우리의 신앙의 형태에 지배적이었다. 흔히 말하는 로마서 8:29-30의 성구를 가지고 구원의 서정(ordō salutis)으로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시간적 인간의 심리적인 사슬로 이해하여서 좁은 이해 또는 왜곡된 성경해석과 이것을 기초로 한 삶을 배워왔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을 구원의 서정 아닌 구원의 은덕으로 보는 시도가 있다. 이 시도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격화와 연관되고 자주 인용되는 몇구절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미처 우리의 편견과 전통에 의하여 매몰된 역사적 의미들을 한 번 느껴보기 위하여 한 작은 시도로 주석을 하고자 한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전영역에 맺히기를 바란다.

II. 동방신학에 대한 이해

동방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방신학과 비교하여 이해하는 편이 용이할 것이다. 지금까지 서방신학이 이성적으로 이해된 신학을 추구하여 '학'을 강조한 반면에, 동방신학은 온전한 의미의 '신'을 강조한 점에서 큰 차이점을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자연히 신학하는 방법과 자세에서도 대조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예를들면, 동방신학에서 성인으로 존경하는 세 사람이 있다. 사도 요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Gregory of Nazianzus, 329-390년경) 그리고 시므온(Simeoen the New Theologian, 949-1022) 등이 있다.

이들의 한결같은 신학을 하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하고 하나님을 말한 것이었다. 이것은 동방교회에서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신'학'이라는 논리적인 측면 이전에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행위 전부가 곧 신학이다. 특별히 그레고리는 신학적 체계가 아니라 세례와 성찬등의 예전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기여했다. 이처럼 동방교회에서는 교리, 신학 및 예전적인 경험이 통일성을 이룬다.³⁾

반면에, 우리가 속해 있는 서방교회는 고대의 회랍교부, 특히 어거스틴으로부터 중세의 토마스 신학 종교개혁이후의 16-17세기 개신교 스콜라 신학에서 이어져온 전통등에서 우리는 서방교회가 이성과 신앙의 끊임없는 대결양상을 본다.

한때는 신앙중심에서 이성을 이해 혹은 이성을 중심으로 신앙을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등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잠재된 위험성을 본다. 위험성이란 바로 신앙과 이성이 계시의 수납의 두 통로임을 암시적으로 우리는 인정 한 분위기에 있다. 이것은 계시의 이중성, 신인식의 이중성을 의미한다. 우리가 말하는 신학은 이성이 계시에 종속된 신학을 한다. 앞으로 이러한 신학의 본래의 모습으로 가야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방신학의 신학 이해는 무척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A. 예배로서의 신학

3. 유해무, 개혁교의학, (서울, 크리스찬 다이저스트, 1997), p24-25

정교회 예배의 특징

[러시아 주요 역대기](Russian Primary Chronicle)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키에프의 왕 블라디르르가 아직 이교도였을 때 그는 어느 종교가 참 종교인지 알고자 하여 세계 여러나라로 사신들을 보냈다. 사신들은 처음에 불가강 지역의 회교도인 불가리아인들에게 갔는데 당시 불가리아인들이 기도할때에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들처럼 주위를 응시하는 것을 보고서 실망하여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그들은 블라디르르에게 “그들에게는 기쁨은 없고 비찬과 악취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체계에는 전혀 좋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보고했다. 그들은 다음으로 도일과 로마를 여행했는데, 그곳의 예배가 다소 만족스러운 것을 발견했으나 이곳도 역시 아름다움이 없다고 불평했다. 마침내 그들은 콘스탄티노플로 갔고 소피아 대성당에서 드리는 성찬예배에 참석함으로써 그들은 원하던 것을 발견했다. “그때 우리는 하늘에 있는지 지상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어느 곳에서도 그같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묘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곳 사람들 중에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다른 모든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의 아름다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정교회의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신적인 아름다움의 강조이다. 비잔티움과 러시아인들의 특별한 은사는 영적 세계의 아름다움을 감지하고 그 아름다움을 예배 안에서 표현하는 능력이다. 두 번째로, 러시아인들이 “우리가 하늘에 있는지 지상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 특이하다. 정교회인들이 볼때에 예배는 “지상의 천국” 바로 그것이다. 거룩한 성찬예배는 동시에 두 세계를 포용한다. 왜냐하면 지상에서나 천국에서 성찬예배는 동일한 것 - 하나의 제단, 한 희생제사한 임제 - 이기 때문이다.

예배하는 모든 장소에서 비록 외적으로는 초라해도 신실한 자들이 성찬을 거행하기 위해 모일때에 그들은 “하늘의 처소”로 들려 올려진다. 어느 곳이든 거룩한 희생제사를 드리는 곳에는 그 지역의 회중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보편 교회 즉 성인들, 천사들, 동정녀 마리아와 그리스도 자신이 임제하신다. “지금 천상의 권세들이 우리와 함께 하며, 눈에 보이지 않게 예배하고 있다.” -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인간들 중에

거하신다는 것이다.”

정교회의 세번째 특징은 참 신앙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던 이 러시아인들은 도덕적 규칙들에 관해 묻지 않고, 합리적 교리적 진술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다만 각 민족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 보았다. 종교에 대한 정교회의 접근은 근본적으로 전례적인 접근이다. 즉, 신적 예배라는 맥락 안에서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정통주의(Orthodoxy)라는 단어가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예배를 의미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정교회에서 인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진실로 참된 존재가 되며 예배 안에서 자신의 완전과 자아성취를 발견하는 성찬예배적 피조물로 본다. 정교회 신자들은 자신의 신앙의 표현인 거룩한 성찬예배 안에 자신의 모든 종교적 경험을 쏟아 놓았다. 성찬예배는 그들의 시, 예술, 음악에 영감을 주어왔다. 정교회 성찬예배는 중세시대에 그러했던 것처럼 결코 학식 있는 자나 성직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중적인 것, 즉 전체 기독교인들의 공동 소유로 남아 있었다.⁴⁾

정교회 예배의 기본형태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같다. 첫째로 성찬예배 둘째, 성무일과(즉 아침기도와 저녁기도라는 두 가지 주요일과 그리고 만파, 조파[오전 6시 기도] 제1시과[오전 9시 기도], 제3시과[정오 기도], 제6시과[오후3시 기도] 그리고 제9시과[오전 6시기도])등 여섯 가지 기도시간이 있다. 셋째는 특별한 경우에 행하는 성사가 있다.

세례, 결혼, 수도, 서약, 대관식, 교회봉헌 그리고 장례들 특별한 경우를 위해 의도된 예배이다. 정교회에서는 이것들 외에 여러가지 준 성사들을 집례하고 있다. 보통 서방 기독교인들은 주일 저녁에 저녁예배를 드리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정교회 신자들은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린다. 종교회 예배에서는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다.

오늘날 정교회의 예배는 초대 교회에서처럼 모두 찬송이나 성가로 진행한다. 정교회는 성화로 가득차 있다. 칸막이에, 벽에, 특별한 성물함에, 혹은 책상 위에 성화가 놓여져 신자들이 공경할수 있게 되어 있다. 정교회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양초를 사 가지고 성화에다가가서 성호를 긋고 성화에 입을 맞추고 그 앞에서 촛불을 켜는 것이다. 엘리자벳 1세때에 러시아를 방문한 영국 상인 찬슬러는 “그들은 위대한 촛불 봉헌자들이다”라고 평했다. 교회를 장식하는데 있어서 성화들은 임의적으로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학적 계획에 따라 배열되므

4. 대니얼 B.클린데인, 동방정교회 신학,(서울,은성,주승민옮김,1997), p14-18

로, 교회건물 자체가 하나의 위대한 성화 또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이룬다. 교회를 가득 채운 성화들은 천국과 지상이 만나는 지점 역할을 한다.

정교회 예배는 공동체적이고 대중적이다. 정교회 예배에 종종 참석하는 비정교회인들은 예배하는 전체 공동체(사제와 회중)가 얼마나 밀접하게 결속되어 있는지를 재빨리 깨닫게 될 것이다. 특히 회중석의 부재는 일종의 일체감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정교회 평신도들은 “미사를 듣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교회에서는 미사는 성직자들이 평신도들을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와 평신도가 함께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⁵⁾

정교회의 성례전

교회는 성찬식에 의해서 교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의롭게하고 성화하시는 은혜를 교인들에게 수여한다. 성찬식은 거룩하게 제정된 의식으로서, 신비하게 전해진 불가시적 은혜를 가시적인 수단에 의해서 전해준다.

그러므로 합당하게 받은 성례전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된다. 성례전은 “참여하는 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은혜의 도구”로서 신실한 참여자로 하여금 구주의 구속 사역 안에서 성체 배령자가 된다. 성례전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위한 훌륭한 수단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성례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완성하신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에 의해서 모든 신실한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례전이 정교회 의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이다. 실로 “교회의 총괄적인 의미는 성례전, 교회의 존재, 그리스도의 몸의 총만과 세부적인 지체들 안에서 실현된다. 성례전에는 세례, 견진례, 성찬식, 서품식, 고해성사, 혼인, 성유식등 일곱 가지가 있다. 이중 세가지(세례, 견진, 서품)은 반복 될 수 없는 것이며, 나머지 네가지(성찬, 고해성사, 혼인, 종부성사)는 반복 될 수 있다 (즉, 오직 한사람에게 일 회 이상 행할 수 있다).

각각의 성례는 나름의 특별한 은혜를 전달한다. 세례와 견진례는 의롭게 하고, 중생하는 은혜를 전달하며, 고해성사와 성유식은 영혼과 몸을 치료하는 은혜를 전한다. 서품식과 혼배성사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특별한 기능을 행할수 있게 한다. 성찬식은 영적으로 우리를 먹이고 만족케 해준다.

5. 대니얼 B.클린데인, 동방정교회 신학.(서울,은성,주승민옮김,1997), p18-25

성례전의 안전함은 보이지 않는 (성례) 집전자이시며, '전수자'이신 주님의 명령과 제정에 의존한다. 이것은 또한 성례를 집례하는 사제의 지위와 영향력에 의존한다. 성례전의 효력은 결코 집전자나 그것을 받는자의 도덕적 자질이나 신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례를 거행하는데 있어서 모든 마술적이고 기계적인 행위가 배제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례 집전자인 사제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질적인 집례자인 주님의 도구에 불과함을 깨닫는다. 둘째, 성례의 성취는 교인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성례가 교인들에게 개인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전11:29)고 하신 성경 말씀에 따라 스스로를 준비하기만 하면 된다.

이와 같이 성례전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신앙과는 상관없이 효과적으로 성취된다. 7가지 성례는 옛부터 알려졌기에 관습으로 받아들인다.⁶⁾

그러면, 정교회에서 말하는 성례들을 간단히 언급하면, 세례는 성령의 새롭게 함과 '중생의 목욕'인 거룩한 세례에 의해서, 믿는 자들은 옛 사람의 죄악된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그를 통해서 은혜의 나라인 교회로 들어간다.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하고 새롭게 되며 새로이 지음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가 되며,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성령안에 참여함을 통해서 신적 본성에 참여하게 된다.

크리소스톰(Chrysostom)의 말에 의하면, "세례를 통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성화되며, 성령과 교제하게, 양자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대 바실(Basil the Great)에 의하면, 세례는 "포로들을 속량해 주는 것, 빛을 탐감해준 것, 영혼의 중생, 밝고 빛나는 옷, 누구도 공격할수 없는 인(印), 천국들 향하는 전차, 천국의 목적, 양자됨의 선물이다. 실제로 믿는 자들은 이러한 성례전을 통해서 그들의 원죄, 및 모든 자범죄를 용서받는다.

신적 양자됨의 은혜에 위해서 죄의 몸은(정욕은 제외됨) 하나님과 화목케 되며 의롭게 되고 가치가 있게 되기 때문에—이러한 모든 죄는(그 죄책과 형벌과 함께)완전히 사해지며 제거된다.

그리하여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 안에, 교회의 몸 안에 연합된 지체이요 시민이 된다. 세례를 통해서 원죄는 완전하고 분명하게 사함을 받으며, 아울러 개인이 범한 자죄들도 근절된다.

6. 대니엘 B.클랜데닌, 동방정교회 신학,(서울,은성,주승민옮김,1997), p29-31

세례는 사람의 균원인 죄의 몸의 존재론적 멸망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람이 초래되었기 때문이다(롬5:12).

세례받은 사람들은 견진례를 통하여 세례 때에 시작된 새로운 영적 상태를 발달시킬수 있는 능력 및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받는다." 몸은 눈에 보이는 기름으로 부음을 받으며, 영혼은 거룩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성화된다". 견진례는 "성령이며...그리스도의 선물인 성령이며, 그의 신적 임재의 실현이다."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영적 본성을 주는 반면, 견진례는 그것을 더 확장시켜주어 새로이 세례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해준다. 신자들은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하며,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의 묘사대로 "한 몸, 한 피, 그리스도의 담지자요, 성전의 담지자들"이 된다. 예루살렘의 시릴(Cyil of Jerusalem)의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그대는 그분과 동일한 몸, 동일한 피로 만들어진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 지체들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품게 된다. 그리하여 복된 베드로의 말대로 우리는 그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주님이 몸은 본질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고 또 그들을 신화(神化)시켜준다.

그것은 자체의 본성적 특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신적 생명을 전해주고, 또 그들 안에 신적 생명을 심어준다.

고해성사를 정교회에서는 실시한다. 우리가 세례 받은 후에 범한 죄들을 누우치고, 사제나 주교앞에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 회개, 고해성사는 제2의 세례라고 묘사된다.

아타나시우스에 따르면, "충분한 회개는 모든 죄를 사해줄 것이다".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집행하는 성직자는 다만 죄사함을 선포할 뿐이다. 바질도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 안에서 죄고백을 맡은 사람에게 죄를 보게해야 한다'. 진지하고 마음에서 우러난 회개를 통해서 얻은 죄사함은 완전한 것이므로, 다른 것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죄를 고백한 사람에게 부과된 형벌은 도덕적 회복과 치료의 출발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일종의 영적 치료제, 정욕의 근절 및 개선을 위한 교훈적이고 치료적이고 교정적인 방편으로서, 회개한 죄인들의 덕을 강화하며, 그

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본보기를 만들어 준다. 이러한 형벌들은 전혀 보상적인 특성을 갖지 않는다. 정교회는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인, 형벌, 외적이고 일시적인 죄사함, 공덕의 보고, 주님의 수난의 넘쳐흐르는 은혜, 성인들의 수행하는 공덕사역, 연옥의 불 등에 반대한다.

교회의 목회자들은 서품식을 통해서, 주교의 안수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원에 의해서 특별히 성화된다. 교회의 세 단계의 위계(감독, 장로, 수석사제)의 임명은 거룩한 전승에 의해서, 그리고 신약성서의 의해서 풍부히 증거된다. 이 세 계층의 성직 제도는 정교회 내에서 중단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 위계제도의 기원은 사도들에게도 거슬러 올라간다.⁷⁾

또한 동방교회 이해에서 성상의 의미와 내용도 중요하다.

성상은 성인의 영화롭게 된 상태, 즉 그의 변화된 영원한 얼굴을 보여준다. 성상은 은혜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정교회의 금욕적 경험의 표명인 성상은 중요한 교육적인 기능을 소유하며, 그 안에 교회 예술의 근본적인 목표가 놓여 있다.

성상의 건설적인 역할은 기독교적 삶의 진리들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전인의 교육에 있다.⁸⁾ 그러면, 기독교적 진리를 어떻게 구현하였는지를 본다. 정교주일의 시가송에서 성상에 담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 카논(Canon)은 제2차 성상파괴론 시대의 인물인 테오파네스가 지은 것이다. 테오파네스는 니케아의 총대주교가 되었으며, 847년에 사망했다. 이 카논은 개인적으로 성상 보존을 싸움에 참여했던 인물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서 교회의 전체적인 경험, 신적 계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험, 즉 피로 수호된 경험을 표현하고 있다.

아무도 아버지의 말씀을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 테오토코스여, 그가 당신으로부터 육체를 취하셨을 때,

그는 자신에 대해 묘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형상을 신적 아름다움과 연합함으로써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말과 성상으로 우리의 구원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시가송의 첫 부분은 성 삼위의 제2위의 낮아지심을 말하면서 성상에 대한

7. 대니얼 B.클렌테닌, 동방정교회신학, (서울, 은성, 주승민 옮김, 1997), p32-40

8. 대니얼 B.클렌테닌, 동방정교회신학, (서울, 은성, 주승민 옮김, 1997), p79

기독교적 기초에 관해 언급한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성육신의 의미, 인간 및 우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보여준다.

이 구절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교부들의 정식을 묘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가송의 끝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응답, 즉 성육신의 구원하시는 진리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경륜을 받아들임,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의 참여, 그리고 구원의 성취를 표현한다. “우리는 말과 성상으로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⁹⁾

이 시가송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성상이 주는 영적 실제적인 면을 살펴볼 수 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을 말로 고백하는 방법을 이해하기는 쉽다. 성상(또는 행위)에 의한 신앙고백은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이상의 것이 함축되어 있다.

교회의 생생한 경험, 기록을 획득한 사람들이 말이나 성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의미한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모양을 재확립할 수 있다. 우리는 내적 노력(영적 실천)에 의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며,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성상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이 곧 교부들이 “활동적인 삶”이라고 부른 것, 하나의 내적 행위이다.

한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내적 성화(聖化)를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말로 표현된 형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성상이란 정욕을 소멸하고 모든 것을 성화시키는 은혜를 소유한 사람의 형상이다. 만일 은혜가 전인을 비추어 주어, 영적이고 육적인 존재 전체가 기도를 가득차며 신적 빛 안에 존재한다면, 그 성상은 살아 있는 성상, 진실로 하나님의 모양이 된 한 개인의 상을 가시적으로 획득한다. 성상은 신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적 생명에 참여함을 지적해준다.¹⁰⁾

우리는 지금까지, 동방신학에서 있어서, 예배와 관련된 몇가지 내용을 살펴보았다. 예배속에서 성찬과 성상의 의미와 내용을 보았다. 정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이 그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은 말하면 두가지 방식으로 나타난 하나의 행동이라고 한다.

계시와 그노시스, 계시의 길과 지식의 길은 서로 일치한다. 하나님께서 하

9. 대니얼 B.클렌데닌, 동방정교회신학, (서울,은성,주승민옮김,1997), p48-49

10. 대니얼 B.클렌데닌, 동방정교회신학, (서울,은성,주승민옮김,1997). p64-66

강하셔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인간은 자신을 고양시켜 자신의 삶과 획득된 그 계시를 일치시킴에 의해서 하나님께 응답한다.

인간은 성상 안에서 계시를 받으며, 그것에 참여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성상에 의해서 이 계시를 응답한다. 즉 성상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추진력 및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허강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이다. 만일 교회의 말과 노래를 들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된다면, 성상을 봄으로써 우리는 성화된다.

성찬예배는 말과 상징에 의해서 우리의 감각을 성화시켜 준다. 성상은 인간 안에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표현이므로 예배의 역동적이고 건설적인 요소이다. 그렇게 때문에 교회는 제7차 에큐메니칼 공의회 결정에 따라서 성상을 “생명을 주는 십자가 형상들과 동일한 차원에, 모든 하나님의 교회 안에, 꽃병과 거룩한 의복에, 벽에, 나무판 안에, 가정이나 거리에” 두도록 명령한다. 교회는 성상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해줄수 있는 즉, 우리의 신적 원형의 모양을 획득하며 신인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전해 주신 것을 우리의 삶에서 성취하시는 방법 중의 하나임을 인식한다.¹¹⁾

B. 만남으로서의 신학

서방신학은 인식론적 지향성 때문에 인간의 합리성을 신학적 진리의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높이 존중하였다. 존 로크(1632-1704)는 모든 성경적 계시의 진리는 신앙에 의해서 수납되기 이전에 궁극적 기준인 이성 의해서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입장이 팽배하다. 판넬베르그도 계몽 이성의 법칙에 순응시키려는 결심을 표명했다. 계시의 진리는 이성적인지 여부를 입증받아야 한다. “모든 신학적 진술은 이성의 영역에서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의문시 되지 않은 신앙의 전제에 바탕하여 주장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동방사상가는 이와는 다른 판이한 방식으로 신학을 접근한다. 그렇다고 동방의 사상가들이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써 이성을 거부하지않는다. 정교회의 종교서적들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편집한 [필로칼리아](Philokalia)를 읽어보면, 동방의 영성에 있어서 중심적

11. 대니엘 B.클린데닌, 동방정교회신학, (서울,은성,주승민옮김,1997), p89

인 역할을 한 것이 지성임을 알수 있다.

동방사상가는 이성의 교만을 거부한다. 그들은 이성으로 하여금 신학적 신비를 해명하고, 또한 이성 자신을 진리의 유일한 척도로 자처하도록 허용하거나 격려하는 경향에 저항한다. 그렇다고 동방신학이 비합리성의 영역에로의 비약을 조성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1) 인간의 인지와 개념적 언어의 극단적 제한성에 대한 인식과, (2) 기독교의 이야기 속에 고유하게 내재하는 신비성에 대한 경축을 조성한다. 이 경축을 공의회와 선언문들과 에큐메니칼 신조들은 부정의 언어로 표현한다.¹²⁾

이 부정의 언어는 하나님의 본성의 깊이를 지적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니신가를 우리들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동방인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신앙의 신비들은 분석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경배의 대상이고, 만남의 대상으로 이다. 신조들은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들, 곧 삼위일체의 본질-하나의 본질 속에서 세분의 위격을 존재하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이성이 가지고 있는 관계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기보다는 오히려 묘사한다.

동방에서, 삼위일체의 교리는 추상적 사생의 문제라기보다는 “합리적 개념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는 비상상적이고 평범한 영혼들”의 신앙과 실제적인 경험의 문제가 되어 왔다. 삼위일체 교리는 합리적인 선언에 의해서 도달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신앙만이 “이러한 신비들을 파악할수 있다. 왜냐하면, 이성과 지성을 넘어서 사물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다.(히11:1)” 철학적 해결보다는 단순한 교리적 묘사에 치중하는 것이 동방의 신학적 특색이다. 예를 들면, 451년의 칼케돈 신조의 기독교론의 문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다. 그리스도의 구 본성은 “혼동이나, 변화, 분할, 혹은 분리 **없이**” 존재한다.

동방의 신학은 인간 언어의 개념적 부적합성과 인간 정신의 심각한 제한성,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자체의 불가해성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있다 - 이 모든 것은 곧 동방의 신학은 서방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신학적 추상화로부터 멀리 격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배, 명상, 그리고 합리적인 지성 대신에 환상이 동방전통의 특징을 의미한다.¹³⁾

이러한 경배, 명상은 신학에 부정적인 신학사상을 낳게 한다. 여기서, 부정적인란 하나님과의 인간과 관계에 있어서의 자세속에서 나왔다. 부정신

12. 대니얼 B.클린데넨, 동방정교회개론, (서울,은성,김도년출판,1996), p78-85

13. 대니얼 B.클린데넨, 동방정교회 개론, (서울,은성,김도년출판,1997), p85-86

학의 정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부정의 방법은 최종적으로 지식의 대상이실 없는 분에 대한 최고의 무지에 의해서 일종의 이행에 도발하기 위해서, 하나의 대상이 획득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속성들을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정신의 상승적 작업이다.

이 방법을 적용한 교부들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경륜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수없다. 성부는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다. 성령 안에서 받은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식할 수 없으며, 이런 방법으로 성부에 대한 지식으로 상승되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의 계시는 “섭리적”이다.

이것이 바실의 추적인 표준적인 신지식의 길이다.

바실은 [성령론](Treatise on the Holy Spirit)에서 “하나님을 아는 길은 성령에게서부터 성자를 통해서 성부에게로 통한다. 반대로 본질적인 선, 본성적인 성성, 왕의 권위는 성부에게서 흘러나와 독생자를 통해서 성령에게로 흘러간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경륜의 따른 모든 행위는 이 하강의 방향을 따른다. 즉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해서 성령에게로 간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방법과는 반대로 하강의 길이 아니라 상승의 길이다. 그것은 나타내주는 에너지의 근원을 향한 상승의 길, 위-디오니시우스의 표현을 사용하자면, “신정”(Thearchy)을 향한 상승, 바실이나 4세기의 그리스 교부들의 표현을 따르면 성부의 독재를 향한 상승의 길이다.¹⁴⁾

또한 이러한 경륜을 통한 하강의 길과 경륜적이 아닌, 신학을 통한 상승의 길을 교부들은 삼위일체에 적용시킨다. 우리가 모든 나타난 경륜을 초월하여 세 위격들의 동일 본질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한 성부의 본질 계시라는 하강의방침을 포기해야만 한다.

그것은 로고스의 우주론적 의의를 강조하면서 삼위일체의 섭리적인 양상에만 집착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성자종속설이라는 니케아 공의회 이전의 삼위일체 신학일 것이라고 의심할수 있다.

우주론적 연계를 벗어나서, 경륜과 피조된 연대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는, 신학-삼위일체의 동일본질에 대해 우리가 가질수 있는 지식은 추상화의 방법에 따른 결과, 하나님의 경륜의 차

14. 대니얼 B.플린데인, 동방정교회신학. (서울,은성,주승민옮김,1997). p230

원에서 하나님의 위격들에 대한 개념에 부여할수 있는 모든 속성(선,지혜, 생명,사랑 등)에 대한 지식이다-피조세계 안에서 신적 본성을 나타내는 모든 속성등을 부정함에 의한 부정적 이동이 필요하다.

즉, 초월적이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개념들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주론적 함의로부터 탈피를 원하는 삼위일체 신학은 아포카시스에 의해야 한다.¹⁵⁾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정신학은 로스키의 정의로 이끌어진다. 부정 신학은 단순히 무아경의 신학이 아니다. 그것은 신학전체를 변형시켜서 계시의 신비를 명상하도록 이끄는 근본적인 태도의 표현이다.

부정주의의 무엇보다도 교회의 교리 안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발전하도록 가르친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고의 자연적인 길을 따라서, 영적 실재의 자리를 강탈하는 개념을 형성하는 것을 금한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추상적 개념에 대해 사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철학의 학파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과의 사귀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때문에, 모든 철학적 학습과 부정신학의 원리에 충실한 동방 전통의 교부들이 자신의 사람들로 하여금 신비의 문지방을 넘는 것이나, 혹은 하나님의 우상들은 하나님 자신과 대치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¹⁶⁾

우리는 좀 낮설지만, 동방신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본으로 여기는 것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예배에서 성찬과 성상의 의미나, 신학의 방법론에서의 근본은 삼위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신학방법론임을 살펴 보았다. 그러면, 이제는 이러한 모든이 응용되고 꽃을 피우는 한 정점을 살펴본다, 그것은 바로 동방교부들이 말하는 신격화에 대하여 살펴볼까한다.

Ⅲ. 동방신학에 있어서의 신격화의 위치

개혁신학의 인간론의 주제는 두가지이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과 구속의 대상인 인간이다. 칼빈이 말하기를, “우리가 처음 피조되었을때의 우리의 모습과 아담과 타락 이후에 처한 우리의 조건을 아는 것이다.” 즉, 후자 없이 전자를 아는 것은 쓸모가 없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다.

15. 대니얼 B.클린데닌, 동방정교회신학, (서울,은성,주승민옮김,1997), p231

16. 대니얼 B.클린데닌, 동방정교회개론, (서울,은성,김도년옮김,1996), p92-93

그러나 이 형상과 모양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곧 이어지는 타락 사건 때문에 형상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인간은 타락한 인간 뿐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타락 이전의 인간은 에덴 동산과 더불어 과거의 세계 속에 파묻혔고, 미래의 인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현재의 인간은 죄와 타락의 책임을 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그의 형상을 닮을 때, 원래의 형상을 상기할수 있고, 아울러 종말의 영생을 이미 여기서도 맛볼수 있다.¹⁷⁾

A. 신격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

신격화에 관한 이야기는 고대로 거슬러올라가야 한다. 왜냐면, 이때부터 신격화란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사도적 교부들과 그들 이후의 교부들은 신격화라는 용어 뿐만 아니라 이 사상 자체에 대하여 아주 신중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그나티우스(?-115)는 불멸성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전달된다고 하였다. 성찬의 떡은 '불멸성의 약'이요 죽음을 막는 해독제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그는 신격화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저스틴(100-165)는 시편82편을 인용하면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 신들이라 불려질 것을 말하였다. 신격화란 사상이 내재 되어있다.

이레네우스(120-202)는 시편82:6-7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통하여 신들이 된다고 하였다. "우리는 처음부터 신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다만 인간들이었고 결국에는 신들이 된다"고 하였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155-220)은 신격화라는 용어를 최초로 쓴 인물이다. 그리스도는 천상의 교리로 성부의 양도할수 없는 유산, 곧 우리를 신격화시킨다.

오리겐(185-254)는 예수로부터 신인성이 연합이 시작되어, 인성은 예수 안에서뿐 만아니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모든 자들 안에서도 신성과 연합함으로 신성에까지 고양되며 예수의 계명대로 사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과의 우정과 교제로 증진시킬 것이라 하였다. 또 그는 신적인 것들을 묵

17. 유헤무, 개혁교의학,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p230-232

상함으로 신격화에 도달할수 있다고 하였다.

신격화에 대한 아타나시우스(296-373)는 “성자는 인간이었다가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신격화시키려고 인간이 되었다.” 성도들은 ‘참여’를 통하여 신격화되지만, 성자는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또 성도들은 성령에 참여함으로 신성에 접합되어진다.

신학자 그레고리(330-389)는 모든 신비중에서 가장 큰 신비는 성육하신 예수의 모형을 따라서 산 영인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신격화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 위하여 성자는 성육신하셨다고 한다.

예루살렘의 시릴(315-387)은 성령님이 우리 모두를 성결하게 하시는 이요, 우리를 신격화하시는 분이래 하였다. 바실(329-379)은 신격화를 닮음으로 표현한다.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에게 있어서 신격화는 그리스도를 닮음이요, 이것은 세례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다.

고백자 막시무스(580-662)는 인간의 창조의 관점에서 신격화를 말한다. 은혜로 신격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¹⁸⁾

이러한 사도적 교부와 고대교부들의 신격화 이해는 서방신학에는 다소 생소하고, 혹은 왜곡되기도 하였다. 서방신학이 가지는 일차적 오해는 이 신격화가 범신론이라는 오해이다.

서방의 신학, 즉 19세 독일 신학이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리츨(1822-1889)은 동방신학은 칭의나 화해의 개념은 전혀없고, 우리의 인성 자체가 신격화가 된다는 동방신학자를 반대한다. 왜냐면, 리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윤리관이었기 때문에, 동방신학에는 이러한 윤리가 결여되었다고 본다.

하르낙(1851-1930)도 비판한다. 신격화는 복음의 단순한 내용의 곡해라고 한다. 이것은 고대동방의 신비사상의 배경으로 만들어진 사상이라고 말한다.

롭스(1858-1928)도 역시 신격화의 물리적 구원론을 비판한다. 이레니우스의 성찬이 모종의방식으로 불멸성을 가진다고 보는데, 이 물리적 구원론은 신인 연합의 물리적인 성육신을 강조함으로 윤리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한다. 즉, 서방교회가 신격화를 비판하는 요지는 범신론과 물리적 구원론

18. 유해무,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신격화, (개혁신학과 교회 제7호,1997), p213-226

이다.¹⁹⁾ 이러한 동방신학의 신격화 이해는 오해이다.

교부들이 말하는 신격화는 범신론, 물리적 구원론이 아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강조하고 성육신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성령론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과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말하려고 한 것이다.

B. 동방신학에 있어서의 핵심으로 신격화

테오시스(theosis)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 말을 이해하는데, 두가지 우선되어야 할 이해가 있다. 첫째는 동방신학이 아포파티스를 신학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테오시는 궁극적으로 신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의하려고 할 때에 신중해야 한다. 이비트의 마카리우스(300-390)은 말하기를 신화는 “미묘하고 심오한 것”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팔라마스는 “교부 그들이 말한 것같이, 신화는 오직 그것으로 축복을 입은 사람만에 의해서 정의 할수 있다.” 고백자 막시무스는 신성과의 연합은 그 본질상 인지되거나, 상상되거나, 혹은 표현될수 없다.

둘째는 동방신학자들은 어떤 범신론적 형태도 일심으로 거부한다. ‘신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든지 간에, 인간 본성의 핵심은 상실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테오시스는 절대적인 변형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것이다. 신자와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그리고 진정한 연합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본성의 고결성이 훼손되는 문자적인 병합이나 혼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동방신학은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 혹은 본성에 참여할수 있다는 관념을 일관되게 거부해 왔다. 오히려, 인간은 뚜렷하게 인간으로 남는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신적인 에너지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 참여한다. 심지어 신화된 순간에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인간성이 축소되거나 파괴되지는 않는다.

테오시스에 대한 적절한 유비는 하나님의 성육신이다. 막시무스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것처럼, 인간은 신성 안으로의 유입을 경험한다.

마카리우스와 크리소스톰은 테오시스를 결혼의 비유로 설명한다. 두 사람이 한 몸으로 결합함에도 불구하고, 각자는 자신의 고결한 독립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서로는 하나의 존재를 함께 나누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

19. Ibid., 206-212

하는 것과 같이, 신자는 “형언할 수 없는 진교” 안에서 하나님께 결합된다 (고전6:15-17).

테오시스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의미한다.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표현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분은 우리를 거둬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타락한 상태에서부터 타락하지 않는 상태로, 필멸의 운명으로부터 불멸의 운명으로 인간의 아들로 부터 은혜를 통해 양자로 맞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및 신의 아들로 변화시켜 주신다.” 또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 없음이 선포되었다.

그리고 그 분이 수치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멸성을 상속한다.”

동방의 교부들을 테오시스를 신의 형상으로부터 신을 닮음으로의 움직임으로 정의한다. 몇몇교부들은 모든사람이 신적인 형상을 따라 지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왜곡된 형상으로부터 신을 닮은 상태로의 변형을 획득할수 있다고 보았다.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신의 형상을 본성상 소유한다. 그러나 오직 몇몇사람만 각성을 통해서 신을 닮을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자산으로서, 창조된 모든 사람의 인간적 본성 속에 내재한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이 자유 선택을 할수 있는 합리성과 능력을 말한다.

반면에,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의 자유로운 협동을 요구하는 하나님과의 잠재적인 유사성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분을 닮아 갈수 있는 잠재성을 말하고, 닮았다는 것은 형상의 실현을 의미한다.

니사의 그레고리는 말한다. “우리는 이성적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다. 우리는 덕을 획득함으로써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간다. 그러나 나는 나의 자유의지를 행사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 간다.”

테오시스는 어떻게 획득되어질수 있는가? 정교회 신학자들은 우리의 신화는 소위 제3의 출생을 통해서 오직 종말에서만 최종적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데 합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시작은 현재의 삶에서 모든 기독교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필로칼리아]의 저자들을 볼 때, 테오시스의 은사는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었다고 말할수 있다. 다마스쿠스의 존은 주장하기를, “우리는 은혜에 의해서 신화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신이 된다.” 다시말하면, [필로칼리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 사이의 협동 관계를 매우 분명히 보여준다. 마카리우스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과 인간의 책임간의 상호관계를 설명한다.

인간의 노력은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지향하는가? [필로칼리아]와 테오시스에 이르는 인간적 수단을 헬라이어 단어인 넵시스(nepsis)로서 요약된다. 즉, 경성함, 깨어서 지킴, 강렬함, 열성, 각성, 집중, 영적 각성 등이다.

평정, 고요, 기도, 이탈, 분별력 등 외에 우리는 신화에 이르는 또 다른 수단을 추가할수 있다. 우리는 성찬에 충실하게 참여 해야 한다.

피로칼리아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고, 또한 영적 각성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간이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성취”를 희망할수 있다.²⁰⁾

IV.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에 나타난 성화의 이해

칼빈의 성화는 강요3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구원론에서 나온다.

그 구원론의 사항을 요약하면, 첫째, 인간은 죄를 타고난 비참한 존재이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하며, 아울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느껴야 한다. 둘째, 죄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셋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란 전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구원을 이해한 상태에서, 칼빈이 말하는 성화를 롬8:30에서 구원의 서정에서 말한다.

구원의 서정은 이렇게 보통 말한다. 부르심-중생-믿음-회개-칭의-양자-성화-견인-영화의 단계를 말한다. 여기서,이것을 시간적인 순서나,그렇지 않는나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칼빈은 이 순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는 순서를 인정한다. 그러나 아주 상세한 구원의순서를 말하지는 않는다. 구원의 순서에서 각 단계들을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며 전체적이며 입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구원의 순서에서 구원의 각 단계들은 시간적인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다.

20. 대니얼 B.클린데닌, 동방정교회 개론, (서울,은성,김도년 옮김,1996), p218-230

논리적인 순서일뿐이다. 칼빈은 구원의 순서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단계가 아니라 동시적이고 유기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중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의 처음에 일어나지만 그것이 주는 여파는 신자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되어진다. 성화의 은혜는 칭의의 은혜와 동시에 주어진다. 또 칭의와 더불어 함께 성화도 시작된다.

칼빈의 성화에 대한 정의는 그의 책 강요.Ⅲ.14.9을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욕망이 매일 점점 죽어가므로 우리는 실제로 거룩하게 된다. 성령이 우리안에 내주하신다고 하여 우리가 로봇(Robot)처럼 가만히 있어도 성화된다고 생각해서는 않된다.

성화란 하나님께 바쳐져 성별되는 것이다. 그 내용은 참으로 정결한 생활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일이다. 칼빈은 강요 Ⅲ.14.9에서 성령으로 성화된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어찌해서든지 그의 영광만 증진시키려 하는 특별한 뜻을 품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칼빈이 말하는 성화의 특성은 무엇인가?

첫째로 성화는 한순간에 완성되는 단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계속되는 점진적 과정이다. 성화는 주의 재림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성취될수 없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성화를 체험하지만 현세에서 죄없는 완전성을 체험하지는 못한다.(강요.Ⅲ.3.10)

A. 하나님 은혜 중심의 성화

칼빈은 철저한 은혜중심의 신학자이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구원과 성화는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참미하기 위함이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처리하시는 방법일뿐 아니라 또한 신자들의 삶과 봉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함을 성장한다.

성화의 과정을 걸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십자가의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깊은 신뢰를 가져오게 하고, 인간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겸손한자

로 만든다.(상요.Ⅲ.8.2)

또한, 십자가의 고통은 분명히 영적 기쁨으로 귀결되게 하시고 그 기쁨에서 감사가 나오게 한다. (sursum corda, 네 마음을 들라!)-고난과 승위의 전경(상요.Ⅲ.8.1)에서는 "...그리고 그분의 숙으심을 온받을 때 그분의 영광스런 부활에 참여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 온갖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와 우리는 사림은 더욱 공고해진다!

그 분과 사림에 들어가게 되면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될 뿐 아니라 구원을 증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²¹⁾.

성령께서는 우리안에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므로 그의 유익을 열게 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수하셔서 우리의 육을 숙이시고 영을 소생시키시는 일을 반복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순종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신다.(강요.Ⅲ.14.9)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성화는 불가능하다.

B. 실천적이고 전투적인 성화

칼빈이 말하는 성화는 전투적인 성화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책임과 노력을 배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응하고 노력할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책임도 동일하게 강조한다. 인간은 피조물인 동시에 인격체이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요, 동시에 책임을 갖는 존재이다.

예를 들면, 칼빈은 회심의 문제에 있어서, 회심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삶의 진실한 전향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외적 행위에서 뿐만 아니라 영혼자체의 변형을 요구한다"(강요.Ⅲ.3.6)

둘째,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두렵움에서 나온다."(강요.Ⅲ.3.7)

칼빈은 회심은 하나님의 행위, 인간의 행위인가?에 대하여 위의 것을 종합하면, 회심은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인간의 일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²²⁾ 성화에도 적용된다.

21. 필립 홀트류, 기독교 강요 연구 핸드북, (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박희석 옮김,1997), p208-209

22. 이양호,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한국신학연구소,1997), p159-160

성화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의 역사요 동시에 인간의 노력이 따르는 의무이기도 하다. A.후쿠마는 말한다. “성화는 신자의 노력이 포함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더 노력 할수있게 해주는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게 된다.”²³⁾

칼빈의 교리는 실제의 삶과 연결된다. “복음은 허의 교리가 아니다. 그것은 생명의 교리이다. 오성이나 기억력만으로 복음의 교리를 알수 없다 ... 구원의 교리는 우렁 마음속에 들어가며 다음에 일상생활이 되며 우리를 개조하고 동화시키므로 복음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강요.Ⅲ.6.4)

칼빈은 성화를 일평생 계속되는 전투적 훈련과정으로 설명한다. 육의 계략에 압도되지 않도록 우리의 태만과 부주의를 떨어버리고 정신을 차려 죄와 싸워야 한다.(강요.Ⅲ.3.14)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싸우는 훈련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 간다. 거룩해지기 원하는 자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자시의 이기심과 싸우며(빌2:11) 본성적인 정욕과 감정을 억누르고(강요.Ⅲ.7.4) 부정을 삼가는 싸움의 훈련과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성화는 이루어 진다.

V. 칼빈의 성례전에 나타난 신비적 연합(Mystical Union) 이해

A. 칼빈의 신비적 연합

칼빈은 말한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은 간단히 말해서, 신비로운 연합이며, 우리는 그것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써 그가 받은 은사를 우리도 공유하게 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덧입고 그의 몸 에 접붙여져야 하기 때문에, 즉 그가 우리를 당신과 하나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와 의의 친교

23. 안토니 후쿠마, 개혁주의 구원론, p333

를 가졌다는 것을 자랑하다.”²⁴⁾

칼빈의 신비적 연합은 그의 의와 성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본다.

칼빈은 unio를 믿음, 성령, 복음, 성례, 선택과 간관하여 이해하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의 산물이고, 성령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진다. 또한 이 성령의 부여심은 말씀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한다. 즉 믿음은 복음을 통하여 성령에 의하여 생산된다는 말이 된다.²⁵⁾

칼빈은 오시안더의 그리스도의 본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입장에 반대한다. 그가 말한 신비적인 연합은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 신자간의 영적인 연합을 말한다. 이 연합은 신자의 영과 육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영적인 연합은 신자의 영혼의 문제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문제에도 연관되어있다. 만약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완벽하고 전적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활의 희망은 희미해질것이다.”²⁶⁾

칼빈은 이로한 영적인 연합은 많은 이미지를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표현한다. “engrafting”, “commuino”, “fellowship”, “partaking”, “adoption” in Christ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런 용어들은 직접적인 칭의의 결과로써 연합에 관한 일반적인 고찰을 할때 사용되었고, 교회론이나 성례론과의 관련해서도 연합이라는 토의에서 사용한 용어들이다.²⁷⁾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신자의 삶의 모든 곳에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신비적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결혼이라는 관계로도 설명한다. 단순한 결혼관계가 아니고 약속적 계약적 관계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의 성화의 원천임을 보여준다.

B. 칼빈의 성례전속의 신비적 연합

칼빈은 성례전을 이렇게 정의한다. “주님이 우리의 약한 믿음을 받쳐주기 위해서 선한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우리의 양심에 확신을 주고,

24. Inst(기독교강요). 3:11:10

25. Dennis E. Tamburello, Union with Christ, p84-87

26. Sermon. 1Cor. p130

27. Ibid., p90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심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증거가 되게 하려는 외적인 표식²⁸⁾이라고 정의한다.

칼빈은 주님께서 세례와 성만찬을 제정하셨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이러한 의식을 사용하는것에 대해 복을 주실 것을 이라고 분명히 기대하면서 그것을 거행할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세례와 성만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칼빈은 여기에 성례전들에 구현된 영적 신비인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을 이룬다고 말한다. 칼빈은 그리스도와 연합은 기독교신앙과 기독교 생활가과 기독교 의식들을 이해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파악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리들 가운데 하나이다.

“머리와 지체들의 연합,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요컨대 신비적인 연합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높은 지위에 우리의 지체가 되셔서 주께서 지니신 은사들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동반자로 삼으시는 그리스도를 임명한다. 그러므로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므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밖에 있다면 주를 보지 못하지마는 우리가 주의 옷을 입고 주의 몸과 연합되었을때, 주님은 우리를 주님 자신과 한 몸이 되게 해주시며, 따라서 우리는 그와 그의친교를 나누는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²⁹⁾ 칼빈이 이렇게 말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의 본질은 그 자체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영적인 신비이다.

그래서 성례전은 연합의 성격을 깨닫고 이해하도록 하기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성례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 각 사람 안에 거하심을 볼수 있는 유리거울³⁰⁾이라고 하였다.

칼빈은 세례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구성원들이며, 주께서 우리와 떨어질 수 없도록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우리들이 주님의 축복들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한다.

세례의 본질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하는것이다.

성찬식은 세례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과 신비스럽게 결합되었다는

28. Inst.(기독교강요) 4:14:1

29. Inst. 3:11:10

30. Serm(Sermon). on 1 Tim. 3:14-15

표식이다. “우리는 빵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된다”³¹⁾

결과적으로 칼빈이 두 성례전을 동일한 목적,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에 이르도록 도와주고 증언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세례는 주로 우리가 이 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증거하지만, 반면에 성찬식은 우리가 이 연합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표식이다.

칼빈은 연합의 영적인 본질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한다. ‘비록 그리스도의 육신이 공간적으로 우리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지만, 성령의 신비한 힘(*verus arcana*)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능력으로 성령의 무한한 사역을 측량하려고 기대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은 믿음으로 생각하도록 하자. 이를테면 성령은 정말로 공간적으로 떨어진 것들을 연합시킨다.”³²⁾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와 연합한 사람들 사이에 성취된 연합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성질이든 본질이 그리스도로부터 신자들에게로 유입되었다거나,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들인 사람들 사이에 ‘어떤 총체적인 혼합’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우리는 “성질뿐만 아니라 유입된 본질(*essentia infusa*)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으로 의롭게³³⁾ 되었다는 오시안더의 견해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한다. 칼빈은 이것을 ‘영적인 연합(*spiritualis coniunctio*)’라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성례전에 있어서 실제(*reality*)는 표식과 더불어 주어진다. 실제적인 효력은 외적인 표식과 결합되어 있다. 성찬식에서 우리는 실제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와 나누는 친교에 초대받았으며, 이는 우리가 말하듯이 “약속이 들어 있는 실제(*reality*)가 여기서 보여졌고, 그 효력이 외적 상징에 부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바로 그것을 행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바를 인준하신다. 주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위하여 이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신다.

31. Comm(주석). on 1Cor. 11:24

32. Inst. 4:17:10

33. Inst. 3:11:5

칼빈의 성례전적 연합의 신비는 성육신의 신비와 평행되고 있다.

칼빈은 신과 인간의 본성들이 신인(God-man,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연합한 이“전대미문의 신비”를 인격의 연합이라고 부른다.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와함께 공유하는 친교는 그의두 본성이신 신성과 인성을입으신 전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친교이다.

이 친교는 오직 그의 육신에 참여함을 통하여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성화와 의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은 모두 우리와 가까이, 우리 자신의 본성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 속에, ‘우리 자신의 살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³⁴⁾

그리스도의 인성이 있는 곳에 신성이있다. 우리는 성만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써 의로움과 용서, 성화, 그리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생긴 열매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된다.

칼빈의 성례전속에 나타난 신비적 연합을 정리하면, 주님이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고 이것과 떨어져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은 이 세상 넘어 하늘에 계시지만 성례전에 참여할 때 우리와 교통하며, 그리고 인간이 가진 속성을 담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나누는 친교는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일은 ‘영적인 방식으로’ 그 살을 먹는 ‘하늘의 행동’이다.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임재는 성령으로 실제로 임재하고 그리스도가 강림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천상의 임재방식’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은 땅에 위치하지않으며, 빵과 포도주에 연우되어 있지않고, 빵과 포도주에 부착되어 있지 않다.

VI. 성경구절 주석을 통한 칼빈의 신격화 이해와 동방교회 신격화 이해

이 장은 시편82:6을 가지고 칼빈의 성화의 관점에서 이 구절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또한 동일하게 동방교회 교부들이 이 구절을 신격화란 관

34. Comm(주석). on Heb. 2:11

점에서 이해를 둘다 살펴보고, 어떤 차이나, 특이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시편 82:6의 주석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시편82:6의 말씀이다. 시편82:6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칼빈은 그의 시편주석에서 이렇게 말한다. 여기서 ‘너희는’에 대하여 두가지로 해석한다. 한 가지는 재판장을 말하고, 또 한가지는 통치자로 해석한다. 칼빈은 두가지 모두 가능하고 본다. ‘너희는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의 관용적구이다. 뜻은 가장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너희는 신들이며’라는 문구도 히브리의 관용구이다. 여기서의 뜻도 지위를 나타내는 뜻을 가진다고 본다.

그러나, 칼빈은 단순히 높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지 않는다. 그는 이 구절을 요한복음 10:35절의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된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셨거든 ...”과 연결시켜서 해석한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는 자신이 심판장들의 수준에 계시다는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보다 작은 것으로 보다 큰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적용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이름은 더욱더 아버지의 나타난 형상이시오, 그 안에 아버지의 위엄을 나타내시며, 신격의충만한 것으로 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해당될 것이다.³⁵⁾

이 이해는 그리스도가 중심인 해석으로 옳다고 생각된다. 또한 작은 것에도 관심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은 것이란 상도, 일반 성도라 여겨진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실현되어야하고 회복되어야 하는 형상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에게 접붙힘을 받고 있는 우리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는 논리적인 추론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형상->예수그리스도->신자의 순서로 이해될 것이다. 또한 예수그리스도는 신성의 충만을 지니신 분이다.

35. 칼빈, 칼빈주석 9권 시편Ⅲ, (성서교재간행사), p434-435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참여하여, 신성의 충만을 맛볼수 있다.

이러한, 칼빈의 해석과 여기에 뿌리두면서, 추론되어질수 있는 이야기를 간단히 하였다. 그러면, 동방의 신학에서 시편82:6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가?

저스틴, 이레니우스, 클레멘스, 아타나시우스 등 유명한 당대의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모두 인용한다. 저스틴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과 같이 고난과 죽음을 당치않을 것이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 신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라고 한다.

이레니우스는 좀더 발전된 진술을 한다. 우리는 구원을 통하여 신들이 된다고 한다. 성육신의 원리로 이것을 설명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뜻이었다.

클레멘스는 세례와 비유하여 이 구절을 설명한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므로, 우리는 밝힘을 얻었고, 밝혀졌으니 우리는 양자가 되고, 완전하여 졌고, 완전하여 졌으니 우리는 불멸이다. 또 그는 말씀을 통한 천상적 교육을 통하여 인간이 신격화가 된다고 하였다.

아타나시우스는 불멸성의 수여를 강조하기 위하여 인간은 본성적으로 죽을 운명에 처하여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성도는 성자에 참여함으로 신격화가 된다고 말한다. 성령께서 이 연합을 가능하게 하신다. 성령의 사역을 강조함.³⁶⁾

VII. 결론

우리는 좀 낮설고, 생소한 동방신학의 진영의 모습을 보았다. 서방신학과는 다른 전통의 형성과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서방보다는 보다 실제, 예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들에게는 신학은 단순히 지식의 축척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경배의 학문으로의 신학을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36, 유해무,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서의 신격화, (개혁신학과 교회 제7호) p213-218

개혁신학도 예전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그 예전이 가지는 은혜의 측면의 강조는 많이 적은 편이라 생각한다. 물론, 일차적인 은혜의 방편은 분명히 말씀(설교)이다. 보이는 말씀으로 성찬의 부요함을 다시 인식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전반적 동방/서방의 이해를 가지고 신격화와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III권의 구원의 은덕중의 성화와 관련된 곳을 살폈다. 문자적인 동일한 단어를 칼빈이 사용하지는 않았다. 얼마전에 한 논문의 제목을 본적이 있었다. 국내에는 소개가 되지는 않았다.³⁷⁾

루터가 이 단어를 자신의 사상에 얼마나 용해되어있는 알지는 못하지만, 개혁신학 진영에서도 이런 시도가 있다는 것에 흥미를 유발시켰다.

칼빈의 성화에서 동방에서 말하는 신격화의 내용들이 비슷한 점이 있었다. 동방은 성육신을 통한 신격화의 이해와 칼빈의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사상에서 성화가 비슷한 이해하고 생각하고, 또, 동방의 신격화의 과정은 경신, 밝힘이라고 하면, 칼빈이 말하는 성화의 과정은 자기의 부인, 기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체험이라고 하면 서로 비슷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물론, 다른점도 있다, 동방의 신격화에 대한 이해는 플라톤 사상, 이방의 신화사상의 표면적인 영향에도 노출이 되었다. 그러나, 이점은 극복될수 있다고 본다. 성경적인 근거와 역사적 근거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 동방신학의 하나님의 형상이론이나, 인간의 무한한 자유의 선택등은 우리와는 다르다. 반면에, 칼빈의 성화이해 에서 본것처럼 그의 사상은 주변의 사상의 영향은 배제된채 오로지 성경의 말씀앞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하여 몇가지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신격화나 성화란 용어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종전의 이해를 넘어서, 같은 한 목적을 향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생각을 발전시켜서 개혁신학에서는 구원론적 종말론이란 맥락에서 신격화가 지닌 풍부한 내

37. 논문의 제목은 [루터와 신격화], Asendorf, Ulrich "The Embeddedment of Theosis in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용을 포섭할수 있다고 본다.

2. 이러한 신격화, 성화는 분명히 삼위 하나님의 사역임을 고백한다. 칼빈에게는 명시적으로 성화가 삼위하나님의 사역이라는 표현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의 신론이 삼위론임을 알 때, 그의 구원의 서정속에 나타는 모든 것은 삼위하나님의 은혜의 시혜임을 안다.

동방신학도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아니, 좀더 적극적으로 삼위하나님의 사역을 잘 들어내기를 원하고 또한 그 분들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방신학에서는 신격화는 분명히 삼위 하나님의 사역임을 고백한다.

3.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변화되는 것을 지향한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그리스도를 보여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에 있어서 성육신(Incarnation)교리를 실천적, 신앙적 이해를 가지면,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유해무, 개혁신학과 교회 제7호, 고려신학대학원
- 유해무, 개혁교의학, 서울:크리스찬다이저스트,1997
- 이양호,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한국신학연구소,1997
- 필립 홀트롭, 기독교강요연구핸드북, 박희석,이길상 역, 서울:크리스찬다이저스트,1995
- 대니얼 B.클렌데닌, 동방 정교회 개론, 김도년 역, 서울:은성,1996
- 대니얼 B.클렌데닌, 동방 정교회 신학, 주승민 역, 서울:은성,1997
- 헨리 비텐슨, 초기 기독교 교부, 박경수 역, 서울:크리스찬다이저스트,1997
- 헨리 비텐슨, 후기 기독교 교부, 김종희 역, 서울:크리스찬다이저스트,1997
- 자로슬라브 펠리칸, 고대교회 교리사, 박종숙 역, 서울:크리스찬다이저스트,1995
- 루이스 B.스미디즈, 바울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사상, 오광만 역, 서울:여수론,1993
- 로널드 S. 윌레스, 칼빈의 말씀과 성례전 신학, 정장복 역,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6
- 칼빈, 기독교강요 III,IV, ed John T. McNeill, The Westminster Press
- Vladimir Lossky. Orthodoxy Theology : An Introduction :Crestwood, NY: ST. Vladimir Seminary Press,1989
- Vladimir Lossky.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 ed John H. Erickson and Thomas E. Bird :Crestwood, NY: ST. Vladimir Seminary Press,1985
- Dennis E. Tamburello. Union with Christ : John Calvin and the Mysticism of St.Bernard: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John Knox Press,1994